

집중분석

작품 늘고 독자층 다양화

추리소설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들어 추리소설의 작가·독자·출판의 3요소가 함께 늘어나 서서히 영역을 넓혀 가더니, 올 여름을 기하여 추리소설이 독서계의 큰 비중을 차지할만큼 급성장을 이루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더위에 짜증나는 여름이 되면 방송국에서 공포영화·추리극 등 이른바 남량물을 편성, 방송하듯이 출판가에서도 주로 가벼운 읽을거리를 기획, 간행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올 여름 서점가에 추리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못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단순한 계절적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가속화되어온 국내 추리작가들의 창작열과 이러한 작품에 훈련되고 익숙해진 독자의 증가, 그리고 추리소설 붐의 조성에 앞장서 온 몇몇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대단한 성과의 하나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에거사 크리스티, 마셜 제번스 등 외국의 유명 추리소설작가의 작품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추리소설을 꾸준히 다작, 양산하여 이 방면에서 국내 정상의 작가로 인정받아 온 金聖鍾의 몇몇 작품들, 그리고 최근 「비상계단의 女子」를 펴낸 노원, 「악녀 두번 살다」를 펴낸 李祥雨 등의 추리소설들이 예상 밖의 인기를 모으면서 팔리고 있다. 교보문고를 비롯한 몇몇 대형서점들은 수제 추리소설 코너를 따로 마련하여 「여름 독자」들을 겨냥한 상술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리소설의 판매고는 “일반 문학서적의 베스트셀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 추리소설을 찾는 독자의 수가 2배는 늘었다”는 것이 서점관계자들이 분석이다.

추리소설의 독자가 예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증가가 아니라 독자층의 확대가 가져온 결과라는 얘기다. 이를

막으려만 '추리소설' 시대

확대된 작가·독자·출판의 함수
80년대를 추리소설 시대의 개화기로 부르는
이유는 이때에 비로소 추리소설 전문작가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테면 주로 중·고생 등 학생들이 압도적이었던 추리소설의 독자층이 최근들어 저변확대를 가져와 중년층, 젊은 셀러리맨, 직장여성,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리소설에 대한 이 정도의 관심과 출판열기는 출판선진국의 사정에 견주어 이제 겨우 시작이요, 걸음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추리소설의 양과 질, 그리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독자층의 광대한 저변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추리소설은 질·양의 두 측면에서 ‘없는 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와있을 뿐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추리소설의 여명기

추리소설은 “부르조아 사회에서 가능한 소비문화의 대표적인 한 형태”(문학평론가 金炳翼), “단순한 지적 게임이나 오락적 기능을 넘어서서 인간의 진실에 접근하는 새로운 문학의 형태”(작가 金聖鍾) 등으로 평가와 해석이 저마다 다르다. 다만 추리소설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토양에 대하여 「경찰사법제도가 확립되고 민주적 재판이 가능한 나라」 또는 「국민들의 소비수준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높은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은 실증되고 있다.

추리소설의 효시는 19세기 중엽에 나온 에드거 앨런 포의 「모그그街的 살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출생지인

미국에서보다 프랑스·영국으로 건너가 루팡과 같은 怪盜,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을 탄생 시킨 것은 이들 두 나라 국민들의 논리적 성향과 함께 민주적 사법제도와 산업화사회가 그 바탕이 되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나라의 추리소설이 그동안 불모지에 가까웠던 원인을 두고 ‘논리적 게임에 훈련되지 않은 국민성’과 ‘비민주적인 사법제도’ 그리

金來成이 1930년대말에 최초의 창작 추리문학을 이 땅에 접목시켰다면, 약40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거쳐 본격 창작시대를 연 공로는 金聖鍾·玄在勳 두 작가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고 국민경제의 낙후성에도 돌릴 수 있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논리는 개연성 이상의 뜻을 갖는 것은 아니고, 문학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자면 역시 전문 작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야 할 것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추리소설이라는 말 대신 탐정소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다. 초기의 추리소설들이 대부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사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명탐정 혹은 명수사관이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해결에 도달하는 이른바 탐정중심의 내용이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나 오늘날 추리소설의 영역은 스파이·산업사회·공상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해결의 주체마저도 지난날과 같은 영웅적 명탐정 대신 평범한 수사원들이 등장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무래도 ‘탐정소설’은 걸맞지가 않다.

우리나라에 추리소설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18년 10월 泰西文藝新報가 코난 도일의 「세

학생의 모임」을 번역, 게재한 것이 효시다. 다른 문학 장르나 마찬가지로 주로 외국 작가들의 몇몇 작품을 산발적으로 번역, 소개해 오던 추리문학계에 국내작가가 등장한 것은 1930년대 金來成이 처음이었다.

와세다대학 법대에 재학중이던 金來成은 「프로필」 「탐정」 등의 일본잡지에 단편추리소설을 발표하는 한편 「탐정소설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라는 평론도 발표하여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국내 추리문학의 鼻祖로서 손색없는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고, 귀국 후인 1939년에는 장편 「魔人」을 발표, 국내에 본격 추리문학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추리소설의 文學性과 한계

해방 후 6·25 직후에 이르는 혼란기를 통하여 많은 문인들이 주로 문학적 이유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국 추리소설을 번안하여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추리문학 창작의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학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앞서와 같은 번안소설도 먹히지 않게 되고, 국내 창작물도 나오지 않아 추리문학의 공백기를 이루었다. 몇몇 이름없는 작가들이 대중잡지를 통하여 추리소설의 아류 비슷한 작품들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추리소설이 곧 저질소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아 이 땅에서 추리소설이 싹트고 자라는 데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외국의 「명작」에 가까운 탐정소설들은 꾸준히 간행되어 추리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한정된 욕구를 충족하였다.

金來成이 1930년대 말에 최초의 창작 추리문학을 이 땅에 접목시켰다면, 약 40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거쳐 본격 창작시대를 연 공로는 金聖鍾과 玄在勳 두 작가에게 돌아간다.

金聖鍾은 이미 그의 문단 데뷔작에서부터 추리작가다운 경향을 보이더니, 1974년 한국일보의 장편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 「최후의 증인」을 통해 「문학성 높은 추리소설」 또는 「추리소설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한 소설」로 평가

받으면서 이후 추리소설만을 전문적으로 쓰는 최초의 소설가로 자리를 굳혀갔다.

그 후 그는 「第5列」, 「浮浪의 江」 「일곱개의 장미송이」, 「白色人間」, 「제5의 사나이」 「국제 열차 살인사건」 등 대작들을 잇달아 내놓아 양적인 면에서도 이 방면의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실적을 쌓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단순추리와 수수께끼풀이식의 사건 전개 위에 인간의 진실을 천착한다는 문학성의 접목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金聖鍾보다 문단에 훨씬 일찍 등단한 玄在勳은 77년 河西출판사가 기획한 '河西推理新書'에 「뜨거운 永河」 「흐르는 표적」 등의 작품을 낸 것을 기회로 그의 문학세계를 추리소설쪽으로 확대하였다.

金聖鍾, 玄在勳 등의 본격 추리소설 작가의 등장과 함께 70년대는 일반 작가들의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로 특히 기억될 만하다. 예를 들어 黃哲暎의 「審判의 집」(77), 劉賢鍾의 「화요일 밤의 여자」(79) 등이 그것인데, 이들 두 작가는 추리소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소설창작 기법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추리소설적 방법을 시도해 본 것. 그러나 문학성이 매우 뛰어났던데 비해 대중적 호응과 인기를 얻는데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는 추리소설이 요구하는 바 충족요건 중 '뛰어난 문학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것이 곧 추리소설의 문학적 한계성이라는 얘기가 된다.

활기 띠는 推理作壇

80년대들어 추리문학의 창작 저변은 더욱 확대되었다. 작가들이 추리소설을 통해 문학적 가능성을 발견한 탓이고, 잡지·출판계의 요청이 여기에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朴範信의 「刑場의 神」을 비롯, 李炳注의 「未完의 劇」, 金成一의 「땅 끝에서 오다」, 李清俊의 「第3의 현장」, 趙海一의 「갈 수 없는 나라」 등이 본격 추리소설이거나 추리소설적 형식을 띤 작품들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도 劉翼叙, 金並總, 朴養浩, 孫永穆 등도 추리소설을 실험적으로 쓰거나 혹은 이 방면으로 변신을 모색한 작가로



**이제 우리나라의 추리문학도
도식적인 수수께끼
풀이에서 벗어나
작품세계를
과학,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손꼽히고, 특히 평론가 鄭奎雄이 玄錫이라는 필명으로 추리소설 작가로 재등장한 사실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뫼니뫼니 해도 80년대를 추리소설시대의 개막 혹은 추리소설의 개화기로 부르는 이유는 이 때에 비로소 추리소설 전문작가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고, 몇몇 출판·잡지사들이 과거에 볼 수 없던 열기로 추리소설 시장의 개척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등장하거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대표적 작가로는 노원, 鄭建燮, 李祥雨 등을 꼽을 수 있다. 鄭建燮의 「뫼」는 84년 한국미스터리클럽(회장 李佳炯, 현재 한국추리문학작가협회)이 제정한 제1회 「한국추리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 작품은 간행되자마자 3만부를 넘는 대량판매의 기록을 세워 출판계를 놀라게 하였다. 현석(鄭奎雄), 鄭賢雄이 각각 제2회, 3회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나 鄭建燮의 「뫼」와 같은 인기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추리작가협회는 한국추리문학상과 별도로 85년부터 「한국추리문학대상」을 신설, 제1회에 玄在勳, 제2회에 金聖鍾을 수상자로 뽑았다.

한국추리작가협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대중문학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치로 내세운 월간지 「小說文學」이 역시 84년부터 추리장편소설을 공모하기 시작, 제1회에 柳寓堤의 「죽음의 세레나데」를, 2회에는 당선작이 없었고 3회에는 「크리스마스 살인사건」을 당선시켜 곧바로 9월호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뒤질세라 추리작가협회도 추리작가만의 공동의 발표장인 무크지 「미스터리」를 창간, 추리문학 붐에 본격적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표지면의 전례없는 확대는 상승적으로 작가의 발굴과 독자층을 넓힌다는 이중삼중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마련. 그 결과 「소설문학」 공모를 통해 데뷔한 작가들 외에도 金楠(「뫼배를 찾아서」), 金光洙(「해운대 極·秘」), 朴旻奎(「얼룩진 휘장」), 여류 추리작가 河園(「회색 수업」) 등의 새로운 얼굴들을 속속 탄생시켜 추리 作壇을 외관상 풍성하게 해놓았다. 현재 추리작가협회에 가입한 작가의 수는 30여명. 그러나 이 중에는 직접 창작한다기보다 지난날 외국작품들을 번역 소개해 온 대학의 영문학교수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활동을 하는 추리작가의 수는 20여명 안팎으로 꼽힌다. 이나마 불모지와 다름없던 지난날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베스트셀러 대열에 끼어든 李祥雨의 「惡女 두번 살다」를 펴낸 출판사 해냄社는 앞으로 「金來成추리문학상」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의 추리소설 창작계는 더욱 가속적으로 풍요로와지리라 기대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도 추리작가협회상과 함께 「에도가와 란보(江戸川亂歩)상」이 있어 추리문학의 작가 발굴은 물론 질적향상과 독자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선례를 미루어, 한국의 경우도 「金來成추리문학상」과 같은 무게있는 문학상이 정착될 때 추리문학의 대중화시대는 멀지 않아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반성되어야 할 것은 몇몇 추리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치졸한 아이디어와 구성, 문장수업이 돼있지 못한 유치한 문체 등은 시급히 극복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아무리 추리소설이라도 그것이 문학인 바에야 최소한의 문학적 기본은 갖춘 후에 추리든 탐정애기든 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 이전의 일. 또 평론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추리문학도 도식적인 수수께끼 풀이에서 벗어나 작품세계를 과학과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산업화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독자들의 지적욕구도 뒤따르지 못하는 추리소설은 아무런 매력도 던져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 李 淸·소설가